

중국조선족 문헌정착설화의 개작·정리 양상과 의미

이 현 홍*

차 례

- | | |
|---------------------------|-----------------------|
| I. 글머리 | 3. 사건이나 정황이 대체된 경우 |
| II. 녹음 자료와 문헌정착 자료의 비교 목록 | 4. 세부 정황이 부연 확장된 경우 |
| III. 개작·정리의 양상과 의미 | 5. 사건이나 정황이 첨가 확장된 경우 |
| 1. 구전과 동일한 경우 | IV. 마무리 |
| 2. 세부적 정황이 축약된 경우 | |

I. 글머리

이 글은 지금까지 간행된 중국조선족 설화집 소재의 작품들이 문자화되는 과정에서 개작·정리된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¹⁾ 중국조선족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지금까지라 하였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90년대까지라고 함이 타당하다. 현재까지 간행된 대부분 자료집들의 간행연대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최근에 간행된 자료집이 있을 수도 있기에 ‘엄밀히 말하자면’이라는 단서를 달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아직까지의 자료 중에서 녹음으로 채집한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충실히 문자화하여 간행한 자료집(이를테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구비문학대계』와 유사한 형태의 자료집)은 없는 듯하다.

설화에 대한 연구는 각각도로 이루어진 바 있다.²⁾ 이들 연구성과는 한결같이 중국 조선족 자치주의 민간문에 연구자들이 간행한 자료집들을³⁾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필자 또한 이들 자료를 대상으로 그 이데올로기 지향적 성격과 변이 양상을 추론하는가 하면, 본토 설화와의 비교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⁴⁾ 이런 여러 연구성과들로 미루어볼 때 이들 자료집에 수록된 2100여편⁵⁾의 설화들은 매우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이다.

그런데, 이 자료집들은 모두 녹음 채집된 내용 그대로를 문자화한 것이 아니라 편저자가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가감 정리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를테면, 이들 자료집에는 설화를 구연할 때 자연스레 나타나는 더듬거림, 반복, 부연, 말실수 등의 구어체적 흔적이 부족하다⁶⁾.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는 상세

2) 조선족 설화에 대한 자료 조사의 현황은 김선풍(『조선족구비문학총서』, 민속원, 1991, 1~30쪽); 김동훈(『중국 조선족 구전설화 연구』, 한국문화사, 1999); 이상열(『중국 조선족 설화의 종합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등에 의해 정리 소개된 바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그쪽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주요 연구 성과만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최삼룡, 『중국조선족 재래설화 변이고』, 『조선족 민속연구』 제1권(연변조선족 민속학회·조선족 민속연구소, 1991); 소재영 외, 『연변지역 조선족 문학연구』(송실대학교 출판부, 1992); 최인학, 『백두산 설화』(밀알, 1994); 이현홍, 『중국 조선족 설화의 구술 전통과 이데올로기 지향성』, 『한국문학논총』 제16집(한국문화회, 1995), 31~56쪽; 하미경, 『중국조선족설화연구』(부산대학교 국문과 석사학위논문, 1998); 김동훈(『중조한일민담 비교연구』, 료녕민족출판사, 2001) 등을 들 수 있다.

3) 이 자료집들의 목록과 그 특징 등에 대해서는 김선풍(1991), 이현홍(1995, 1997), 하미경(1998), 김동훈(1999), 이상열(2002) 등의 논저를 참조.

4) 이현홍(1995), 앞의 논문; 이현홍, 중국 조선족 문헌정착설화의 변이 양상, 『한국문학논총』 제20집(한국문화회, 1997), 29~67쪽; 이현홍, 『중국 조선족 설화와 한국 설화의 비교 연구』, 『문창어문논집』 제37집(문창어문학회, 2000), 27~50쪽.

5) 이들 설화의 전체적 숫자에 대해서 김동훈은 2400여편이라 하였고, 이상열은 2151편이라 하였다. 양자의 숫자적 차이는 중복되는 작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남나드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어쨌든 지금까지 간행된 중국조선족 설화집 소재 작품의 총량은 줄잡아 2100여편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유실된 자료집의 수치는 제외함). 한편, 이현홍은 중국조선족 구비문학총서에 수록된 설화 2100여편과 임석재 전집 소재의 설화 3400여편 중에서 계급대립담을 중심으로 양자를 상호 비교한 바 있다. 두 총서에서 계급대립담은 전자가 200여편, 후자가 160여편인데, 이들 중에서 동일 유형의 계급대립담은 29종임을 알 수 있었다. 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앞의 논문(2000)을 참조.

한 배경 묘사, 삽입가요의 활용, 속담의 활용, 인물의 내면 심리 서술이 제법 구체화되는 등의 경우가 간혹 보이기도 한다⁷⁾. 이는 중국조선족 설화집들이 지닌 구비전승 자료로서의 결합과 특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 설화집들을 중국조선족의 일상과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생성된 특유의 문화유산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중국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출판이 자유로울 수 없고 모든 출판은 정부 당국의 주도하에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조선족 설화 채집자들은 정리원칙⁸⁾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들이 채집한 자료의 변경 기록에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책 당국자의 교화적 의도에 따라 그들은 설화의 채집 정리와 구연 대회 등을 통해 민족의식 함양의 대열에 앞장서는가 하면, 나아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양하는 대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⁹⁾ 이러한 목적 외에, 책으로 설화를 접하는 이의 이해를 돕고, 채록자 나름으로 예술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채집한 설화를 정리 개편하여 간행하기도 하였다.¹⁰⁾ 이와 같은 여러 사

6) 이에 대해서는 하미경, 앞의 논문(1998), 9~10쪽 ; 김현주, 『일상경험담과 민담의 구술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113~142쪽 등을 참조.

7) 이현홍(1997), 앞의 논문, 29~67쪽을 참조.

8) 물론, 정리를 한다고 해서 설화 그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설화집 편저자 나름의 정리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서는 김선풍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요약한다.

①이야기 줄거리는 개조 못한다. ②이야기 인물은 바꾸지 못한다.(예: 선비를 도둑으로,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일 등) ③전면적으로 수집하라. ④작품이 가지고 있는 예술품격을 고치지 못한다. (예: 유우머를 비극물로 만드는 것 등) ⑤구술자의 예술품격을 존중해준다. ⑥반드시 정리를 할 때는 알맹이와 찌꺼기를 골라서 정리해야 한다. ⑦정리는 신중하게 하고 대대적으로 보급시키고 연구는 강화하라.(김선풍, 『조선족설화연구』, 『조선족구비문학총서1』, 민속원, 1991, 8~9쪽)

9) 이현홍, 앞의 논문(1995)를 참조.

10) 『조선족전설집』의 편자는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원고를 심열하고 보니 지난 시기 좌적 노선의 영향을 받아 지나치게 이야기의 교양적 의의를 강조하고 이른바 인민성을 강조한데서 본래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의 갈등으로 엮어진 이야기가 인위적으로 계급투쟁의 내용으로 정리된 작품들도 적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는 이런 폐단을 버리고 과학적인 태도로 전설이나 이야기들을 역사의 본래 몰골대로 그려내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섭섭

연을 지니고 간행된 설화집의 모습이 구전설화 본래의 모습에서 개변된 형태로 정리 간행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이미 간행된 중국 조선족 설화집의 자료적 가치를 전혀 도외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 한다. 그보다는 이를 우리 조선족 특유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논의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이들 기록 정리된 자료와 구연 현장의 자료가 얼마만큼의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녹음 자료와 문헌정착 자료의 비교 목록

조선족 설화에 대한 필자의 이제껏 연구는 한마디로 기존의 자료집에 수록된 설화들의 변이 양상에 관한 것들이다. 그 변이 양상을 추론하기 위하여 필자는 설화 구술 현장의 놀이 문화적 향유와 소통 행위, 계급이념 지향의 기능적 구술전통, 작품의 이데올로기 지향적 구조와 의미 등을 검토 분석한 바 있다. 이어서 필자는 서술방식의 변모와 효과적 구연,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부각과 서사구조의 변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이 양상을 추론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조선족 설화자료집의 특정 작품들과 그에 상응하는 『임석재 전집』¹¹⁾ 소재의 작품들이었다. 중국 조선족 설화집과 임석재 전집의 두 자료들에서¹²⁾ 추출할 수 있는 동일 유형의 설화 작품은 약 210여 종

한 것이라면 글재간이 모자라 그 정리된 이야기가 읽기에 따분하고 구수한 맛이 적은 것이다.”(김태갑 편, 『조선족전설집』, 민족출판사, 1991, 3~4쪽)

- 11) 총 12권의 이 전집에 수록된 설화는 192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 사이의 6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편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채집 정리한 것들이다. 그는 이렇게 채집한 자료들을 지역별 유향별로 분류하여 근자에 12권의 책(평민사, 1987~1993)으로 묶어 낸 바 있다. 이 자료는 중국 조선족의 설화 구술자와 비슷한 연배의 본토 거주 설화 구술자로부터 채록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특히, 1960년 이전에 채집된 설화의 구술자는 중국 조선족 설화 구술자와 그 설화적 잠재 역량을 공유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12) 필자가 활용한 중국 조선족 설화집은 총 43권에 2180여 편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으며, 임석재 전집은 총 12권에 3410여 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에 공통으로 수록되고 있는 동일 유형 설화는 우리 민족 설화의 공약수

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계급대립담은 29종이다. 이들 중에서 그 변모의 실상이 특징적이고 뚜렷한 작품들을 선정하여 그 변이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이양상을 탐색하기 위한 자료로 필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중국 조선족 설화집을 들고 그 자체에서 볼 수 있는 특유하고도 뚜렷한 개작 정리의 흔적들을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거나, 아니면 192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수집 조사한 『임석재 전집』의 자료들 중에서 중국 조선족 설화집에 수록된 자료와 동일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을 추출하고 이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논의를 펼친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론에 의한 연구의 결과도 물론 그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하지만 이 방법은 중국 조선족의 설화자료집들이 얼마만큼 정리 개작된 것인가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지에서 직접 채록한 설화 중에서 자료집에 수록된 작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야기들만을 따로 가려내어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개작 정리의 양상과 의미를 보다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 구전문예 수집가들이 채집하고 문자로 기록 정리하여 간행한 설화집의 설화(이하 문헌 자료 또는 문헌정착설화라 지칭함)와 현지에서 직접 녹음하여 채집한 설화(이하 녹음 자료 또는 구전설화라 지칭함)를 비교할 경우에, 그 대상 자료는 동일인이 직접 구술한 녹음 자료와 꼭 같은 문헌정착설화를 찾거나, 아니면 다른 화자가 구연한 동일 유형의 이야기를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가 가장 바람직한 자료 선정의 방법이었으나 이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이런 조건을 갖춘 제보자를 찾기도 쉽지 않거니와,¹³⁾ 설사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제보자는 이미 자신의 구연을 바탕으로 기록 정리된 문헌 자료의 매끈한 모습에 이끌려 제보자로서의 본래 모습에서 이탈되는 등의 한계를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의 구연설화와 단순 비교하는

적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다 하겠다. 말하자면, 이 공통 유형 설화 210여 종을 우리는 192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 설화 담당층, 그 중에서도 특히 구술적 자질 소유자가 지닌 심층적 잠재 역량의 일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3) 60년대나 70년대에 채록한 설화의 제보자들은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방법도 자료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적어도 중국 조선족으로서의 삶과 역사, 그리고 스스로의 독자적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이 직접 구술한 자료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사정상 여기서는 필자가 몇몇 지인의 도움을 얻어 녹음한 구전설화와¹⁴⁾ 이미 간행된 설화 자료집 소재의 설화 중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찾아 이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개작 정리의 양상과 의미를 추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을 동일 설화라고 말하는 까닭은 간행된 자료집의 설화 제목과 근자에 녹음으로 채록한 설화¹⁵⁾의 구술자가 부여한 제목이 동일하고 그 이야기 줄거리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이들 비교 대상 자료의 제목과 구술자, 수집자, 그리고 정리자 등의 사항을 아래에 보인다. 문헌자료는 같은 제목으로 두 편 이상 소개된 경우도 있으므로 함께 적는다.

『자료 1』 : <칠선녀와 마디풀>¹⁶⁾

녹음 자료 : 리용득 구술(1999년 2월, 남, 59세¹⁷⁾). 길림성 안도현에서 녹음.-10매¹⁸⁾

문헌 자료 : ①『민간문학자료집3』¹⁹⁾(1982, 18~19쪽, 류가전 구술(1980), 리용득 정리).-8매

②『불로초』(료녕인민출판사, 1984, 294~297쪽, 류가전 구술

14) 필자는 이 작업을 연변대학의 장연호 교수와 함께 수행하였다. 녹음 자료의 이야기 수는 140여편이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3500여 매에 이른다.

15) 이들 녹음 자료는 1999년 1월에서 2월, 1999년 8월, 그리고 2000년 7월에서 8월에 걸쳐 길림성 일대에서 채록한 것이다.

16) 이하, 녹음자료와 문헌자료의 이야기 제목이 같을 경우에는 따로 적지 않는다.

17) 연령은 구술 당시의 연령임. 이하 모두 같음.

18) 이하, ‘-매’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의 분량을 말한다. 구전자료와 문헌자료의 분량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밝히지 않는다.

19) 이 책은 『조선족구비문학총서』로 국내에서 간행됨. 이 총서는 중국조선족 민간문에 연구자들이 수집 정리하여 이미 간행한 바 있는 자료집들을 묶어 1991년에 민속원(김선풍 편)에서 영인 간행한 것이다. 이 총서의 3권으로 영인 간행된 원자료는 『민간문학자료집』 3권(중국민간문예연구회 연변분회 편, 1982)이다. 앞으로 문헌 자료의 인용은 이 ‘총서’를 생략하고 총서에서 영인한 원자료의 출판지를 직접 밝히기로 한다. 이 원자료에는 제보자, 채집 장소와 시간 등을 밝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1978), 리용득 정리).²⁰⁾

『자료 2』 : <호미 이야기>

녹음 자료 : 리용득 구술(1999년 2월, 남, 59세). 길림성 안도현.-7매

문헌 자료 : 『불로초』(273~274쪽, 최금녀 구술, 리용득 수집 정리(1960).²¹⁾-4매

『자료 3』 : <일야천금미인>

녹음 자료 : 김태락 구술(1999년 1월, 남, 77세), 연길시 연집향 -18매

문헌 자료 : 『팔선녀』(1987, 271~275쪽). 차병걸 구술. 임승환외 정리.-15매 .

『자료 4』 : <효부중>

녹음자료 : 김영덕 구술(99년 2월, 남, 67세) -11매

문헌자료 : 『민간문학자료집4』(1984, 33~39): 최치만 구술(1982년). 박창목외 정리-25매

『자료 5』 : <전백록>

녹음 자료 : 김태락 구술(1999년 1월, 남, 77세) 연길시 연집향 -18매

문헌 자료 : ①『사랑산』(1982, 141~151쪽) : 허영준 구술(1979년) 박창목 수집 정리.-33매

②『불로초』(1984, 244~248쪽) : 립경률외 2인 구술(1969년8월~1970년8월). 리용득 수집 정리.-12매.

20) 리용득 편, 『불노초』(료녕인민출판사, 1984, 294~297쪽). 여기에 수록된 <칠선녀와 마디풀>은 류가전이 1978년에 구술한 것을 리용득이 정리한 것이다. 자료 ①도 류가전이 1980년에 구술한 것을 리용득이 정리한 것인데, 그 내용은 동일하다.

21) 이 자료는 허춘회 편, 『우스운 이야기, 하하하 호호호』(연변인민출판사, 1989, 61~62쪽) 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보자 관련 정보가 없음.

「자료 6」 : <황금은 흑사심>

녹음자료 : <황금은 흑사심> 김태락 구술(1999년 8월, 남, 77세), 연길시 연
집향-16매

방송 녹취 자료 : <황금은 흑사심> 김재권 정리(1999년 2월 14일)-50매

「자료 7」 : <아랑 전설>

녹음 자료 : <밀양 부사의 이야기>손창석 구술(1999년 8월, 남, 71세) -53매

문헌 자료 : <아랑이>:『짜개마지』(1984, 164~173), 백락서 구술(1981), 박준
범 정리.-26매

「자료 8」 : <포수 총각 색시감을 고르다>

녹음 자료 : 박영복 구술(1999년 2월, 남)-5매

문헌 자료 : 『불로초』(148~150쪽) : 서옥순 구술(1980년, 길림성) 리용득 수
집정리-4매

「자료 9」 : <동방삭>

녹음 자료 : 김태락 구술(2000년 7월, 남, 78세) -25매

문헌 자료 : <삼천갑자 동방삭> : 『민간문학자료집3』(1982, 427~432쪽, 방씨
할머니 구술, 정만춘 수집). -23매

「자료 10」 : <해와 달>

녹음 자료 : 배금순 구술(여, 70세, 2000년 8월) 길림성 안도현-10매

문헌 자료: ①『민간문학자료집3』(1982, 311~319쪽) : 인성춘 구술(1979년)
-35매

②『파경노』(1989, 150~156쪽) : 황구연 민담집. -24매

「자료 11」 : <사또와 묘령녀>

녹음 자료 : 최현 구술(남, 62세, 99년 2월) -25매

문헌 자료 : 『짜개마지』(1984, 188~194쪽) : <사천고을 원님과 백씨부인> :

백락서 구술(1982년 무순), 박준범 정리 -20매

『자료 12』 : <효부 이야기>

녹음 자료 : <지성이면 감천> : 손창석 구술(99년 8월, 남, 71세). 용정시 용문가.-13매

문헌 자료 : <효부(1)>:『민간문학자료집4』(428~430쪽, 강운일 구술(1982년4월).-8매

<효부(2)>:『민간문학자료집4』(509~513쪽), 박영순 구술(1982년 4월). -17매

『자료 13』 <뱀서방 이야기>

녹음 자료 : <구렁서방> : 배금순 구술(여, 70세, 2000년 7월, 안도현 장흥향) -38매

문헌 자료 : <구렁덩덩신선비> : 『과경노』(황구연 민담집, 1989, 140~150쪽) -40매

『자료 14』 <김응서 이야기>

녹음 자료 : 김태락 구술(남, 77세, 1999년 8월, 연길시 연집향) -20매

문헌 자료 : <호미로 좌수의 손목을 동인 김응서> :『민간문학자료집3』(406~408쪽, 강문원 구술 정리) -8매

Ⅲ. 개작·정리의 양상과 의미

1. 구전과 동일한 경우

여기서 ‘동일한 경우’란 기록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법상의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두 자료가 질적, 양적으로 거의 같은 경우를 말한다. 즉, 이야기의 사건이나 세부 정황에 별다른 증감이 없는 경우이다. 이 예로는 <칠선녀

와 마디풀>을 들 수 있다. 비교자료 목록과 함께 이 설화의 녹음 자료를 이야기 줄거리 단락으로 나타내고 이를 문헌자료와 비교하면서 살피기로 한다.

『자료 1』 : <칠선녀와 마디풀>²²⁾

녹음 자료 : 리용득 구술(1999년 2월 13일, 남, 59세²³⁾). 길림성 안도현에서 녹음.

문헌 자료 : ①『민간문학자료집3』²⁴⁾(중국민간문학연구회 연변분회, 1982, 18~20쪽).

②『불로초』(료녕인민출판사, 1984, 294~297쪽, 류가전 구술(1978),²⁵⁾-①과 동일함.

<칠선녀와 마디풀>-이용득 구술(99. 2. 2.)

- (1) 이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에 얽힌 수천 수만의 전설 중의 하나이다.
- (2) 백두산의 한초 마관초 등의 풀들이 꺾인 자리가 뚜렷한 까닭에 깃들인 이야기이다.
- (3) 옛날 하늘 천궁의 칠선녀가 무지개를 타고 백두산에 하강하다.
- (4) 백두산 일원의 절경에 취한 선녀들이 천지의 물속에 뛰어들어 목욕을 즐긴다.
- (5) 목욕을 하고 풀밭에 드러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풀끝이 몸을 찢러 견딜 수가 없다.

22) 이하, 녹음자료와 문헌자료의 이야기 제목이 같을 경우에는 따로 적지 않는다.

23) 연령은 구술 당시의 연령임. 이하 모두 같음.

24) 이 책은 『조선족구비문학총서』로 국내에서 간행됨. 이 총서는 중국조선족 민간 문예 연구자들이 수집 정리하여 이미 간행한 바 있는 자료집들을 묶어 1991년에 민속원(김선풍 편)에서 영인 간행한 것이다. 이 총서의 3권으로 영인 간행된 원자료는 『민간문학자료집3』(중국민간문예연구회 연변분회 편, 1982)이다. 앞으로 문헌 자료의 인용은 이 ‘총서’를 생략하고 총서에서 영인한 원자료의 출판지를 직접 밝히기로 한다. 이 원자료에는 제보자, 채집 장소와 시간 등을 밝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5) 『불노초』(리용득 수집 정리), 료녕인민출판사, 1984. 여기에 수록된 <칠선녀와 마디풀>은 류가전이 1978년에 구술한 것을 리용득이 정리한 것이다.

- (6) 자리에서 일어난 선녀들이 뽀족뽀족한 풀끝을 꺾어놓기 시작하다.
- (7) 해마다 여름철이면 선녀들이 내려와 드러누워 쉬기 좋도록 뽀족한 풀들을 꺾는다.
- (8) 백두산의 곱고 부드러운 마디풀들은 이리하여 오늘도 찾는 이들을 즐겁게 맞이한다.

이 설화는 백두산에 서식하는 한초, 마관초, 갈풀 등의 꺾인 자리가 완연한 까닭에 얽힌 전설이다. 녹음 자료 1편과 문헌 자료 2편이 있는데, 녹음 자료의 구술자는 리용득²⁶⁾이며, 문헌 자료의 경우에는 수집 정리자가 리용득이다. 그런데, 문헌자료 ①은 수집 시기가 1978년이고, 문헌자료 ②는 수집시기가 1980년인데, 구술자는 양자 모두 류가전이다. 수집 정리자가 같은 때문인지 문헌에 수록된 설화의 내용과 분량 모두 양자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이에 비해 구전자료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또한 도입 부분의 경위 설명이 부연된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같다. 구전과 문헌 자료의 이 부분을 들어 보인다.

“그 우리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는 정말 수천 수만 가지 우리 조선족의 아름다운 그 옛말과 전설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 칠선녀와 마디풀에 대한 애깁니다. 그 백두산에 가게 되면 마디풀이 있습니다. 그 일곱 마디가 그래. 거 속세풀 같이 어찌서 이게 마디가 됐는가? 근데 이거 이야기한 양반은 지금 없는데 유가전이라고 천구백팔십년도에 나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천구백팔십년도 이래서 이거 송강에서 이애길 한 건데 송강에서 이야기 했는데, 이 양반이 구술해 준 것을 이거 내 정리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백두산 산에는 해마다 움이 트고 악이 차구 꽃이 피구 열매 맺는 풀이 열매나 되는가 하이까 일천양백 여종입니다. 일천양백 여종 풀만 해서 예! 이런데 여기에서 그 한초, 마관초, 갈풀이 줄기야 입끝 마다에는 그 꺾은 자리가 완연하게 알립니다. 켜네 어찌서 이 풀들의 이렇게 유쾌하게 꺾은 자리가 나 있는가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야기가 들어 있어.”

“이나라 동북변강에 아아히 치솟은 백두산 갈피갈피에는 해마다 움트고 아지차고 꽃피고 열매맺는 풀이 무려 1200여종인데 그중에서도 한초, 마관

26) 이용득님은 일찍부터 조선족 설화문학의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정리 간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업적이 『불로초』라는 민담집이다. 이 분야의 일꾼들에 대해서는 김동훈(1999), 372~382쪽을 참조.

초, 갈풀의 줄기와 잎끝마다에는 그 꺾은 자리가 완연하나니 어찌하여 이 풀들에는 유평하게도 꺾은 자리가 두렷한가?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야기 깃 들어 있으니 아래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문헌자료 ① 18쪽)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설화 <칠선녀와 마디풀>의 문헌 자료에서 우리는 별다른 개작 정리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녹음 자료의 세부 정확이 약간 더 구체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문헌 자료가 구술시의 언어적 반복이나 제보자 관련 정보를 본문에서 소거해버린 결과가 아닐까 한다. 녹음 자료에서는 이야기 구술자가 ‘백두산 관련 전설이 매우 많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하는 이 이야기의 소재적 원천에 관한 정보를 서두에서 미리 밝히는 등의 배려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차이점은 구어를 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화 상태 그대로의 모습에서 약간 벗어나 읽기 좋은 문어체 문장으로 바꾼 정도의 차이만 보인다. 구전 자료의 구술자와 문헌 자료의 수집 정리자가 동일하고 그 내용 또한 짝맞하기 때문에 구술자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조사하면서 들은 이야기의 원형²⁷⁾에 가깝도록 구연하려고 의도한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인지 녹음 자료는 구어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동화를 구연하는 듯한 암기식의 어투로 일관하고 있다. 두 자료의 이와 같은 유사성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자료적 가치는²⁸⁾ 물론 구전설화가 보다 더 적합할 듯하다.

녹음 자료와 문헌 자료가 동일한 경우의 예는 이 외에 『자료 9』의 <포수 총각 색시감을 고르다>, 『자료 13』의 <효부 이야기>밖에 찾지 못했다. 그야 필자가 조사한 녹음 자료가 140여 편에 불과하니 이를 가지고 2000여 편의 문헌 자료를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비문학 그 중에서도 특히 설화는 암기에 의한 기계

27) 이용득은 자신이 조사하여 문헌에 남긴 바 있는 이 전설을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구연하고 있다. 그는 이 전설을 “우리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에 관련된 수많은 전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형에 가깝도록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한다.

28)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구전설화 자료는 가까운 시일 내에 문자화하여 책으로 간행할 예정이다. 이야기의 수효는 140여 편이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대략 3500여 매에 이른다.

적 재생산의 전승이 아니라, 기억을 바탕으로 구연의 현장에서 조금씩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생성 변이되는 방식으로 전승되면서 수많은 각편을 낳게 되는 속성을 지니는데,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녹음 자료와 문헌 자료가 동일한 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듯하다. 더구나 지금까지 간행된 중국 조선족 문헌정착설화의 상당 정도가 ‘정리’라는 이름의 손질을 거쳐 수록된 것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2. 세부적 정황이 축약된 경우

목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호미 이야기>의 문헌자료는 이용득이 소년 시절에 그의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것을 기록 정리하여 간행한 것이며, 녹음자료는 40년이 지난 1999년에 이를 기억하여 자신이 직접 구술한 것이다. 비교대상 자료의 목록과 함께 녹음자료를 서사단락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자료 2』 : <호미 이야기>

녹음 자료 : 리용득 구술(1999년 2월 13일, 남, 59세). 길림성 안도현. -7매.
 문헌 자료 : 『불로초』(273~274쪽, 최금녀 구술, 리용득 수집 정리(1960). -4매.

<호미 이야기>- 리용득 구술, 99. 2. 13.

- (1) 이 이야기는 어릴 때 할머니(최금녀)로부터 들은 것이다.
- (2) 옛날, 어떤 사람이 외동아들의 출세를 위해 어려운 형편에 서울로 유학 보내다.
- (3) 방학 무렵에 아들에게 ‘서울에서 좋은 호미 한 자루를 사오라’고 연락하다.
- (4) 아들은 호미가 무엇인지 몰라 옥편을 뒤져서 그것이 ‘호랑이 꼬리’인 줄 알게되다.
- (5) 호랑이 꼬리를 사려니 통가죽을 팔지 꼬리만 따로 팔지 않다.
- (6) 아버지 ‘좋은 호미는 값이 비싸니 돈을 있는 데로 많이 부쳐달라’고 연락하다.
- (7) 아버지는 ‘비싸고도 좋은 신식 호미가 있는가보다’고 여기고 황소를 팔아

돈을 부치다.

- (8) 몇백 냥의 거금을 주고 호랑이 가죽을 산 아들이 꼬리만 떼서 시골집으로 가져오다.
- (9) 놀란 아버지가 아들의 뺨을 치며 ‘집안 망칠라 글공부 치우고 집안 공부나 하라’고 하다.

이 설화는 농기구인 호미가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한 학생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호미 대신 虎尾(호랑이 꼬리)를 사들고 집에 돌아와서 낭패를 당한다는 이야기이다. 호미와 호미(虎尾)의 발음이 같음에서 착안하여 생겨난 해학적 이야기이다. 이 작품의 녹음 자료는 그 분량이 200자 원고지 7매 내외이다. 그리고, 문헌자료는 최금녀가 1960년에 구술한 것을 손자인 이용득이 수집 정리하여 1984년에 불노초라는 설화집에 수록하여 남긴 것인데, 분량은 4매 내외이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에게서 들은 ‘우스개 이야기’라는 생각에서인지 자신이 정리한 문헌자료보다는 구연자료가 보다 부연된 모습을 보이며, 이와 함께 그 현장성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문헌 자료는 녹음 자료에 비해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 중심으로 축약된 모습임을 추론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칠선녀와 마디풀>과 같은 백두산 관련 전설은 백두산에 대한 신성 관념 때문인지 수집 정리가 1978년도에 조사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 즉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전승되고 있는데 반해, 우스개 이야기인 <호미 이야기>는 문헌에 정착되면서 축약된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리용득이 구연한 <나막신, 버선, 감투의 불평>²⁹⁾이라는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나막신, 버선, 감투가 각각 의인화된 모습으로 각자의 불평을 신세 한탄조로 토로하는 이야기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인다.

주인의 발걸음에 따라 아무 곳이나 함부로 끌려 다니면서 진흙탕을 뒤집어

29) 이 이야기는 이용득이 1999년 2월 13일에 직접 구연한 것이다. 그는 이 이야기를 1960년에 신현구라는 노인(당시 68세)에게서 들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간행된 중국조선족 문헌설화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쓰다 못한 나막신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자, 버선이 나서서 ‘그건 아무 것도 아니라’면서 ‘나는 주인의 발에서 내뿜는 땀 냄새 때문에 겨겨워 못 살겠다’며 불평을 내뱉는다. 이에 질세라 감투가 불쑥 나서면서 ‘우리 주인은 본댁은 물론 수많은 첩들과 시도 때도 없이 관계를 하는데, 그때마다 나는 꼼짝없이 매달려 혹사당하는 신세인지라 그 때문에 겨우 얻어먹은 흰죽마저 매번 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달픈 팔자’임을 주장한다.

이 이야기의 말미에 보이는 “그래 그거는(성기를 직접 내세우는 이야기- 필자) 우리 여기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용인하지 않으니까 하신(성기)을 감투로 고치가 그랬는데, 그 노인 이애기가 성(省)에 우수작품까지 뒀었다”라는 대목을 통해 문자로 기록 정리될 경우의 축약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그는 다른 제보자를 통해 자신이 수집 정리한 바 있는 이야기를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 직접 구술하면서 원형에 충실한 경우를 보여주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부연 확장된 경우를 동시에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구술의 두 사례를 역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문헌에 정착된 자료의 정리 내지는 개작의 실태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위의 두 사례를 통해, 문헌에 정착되면서 축약되는 이야기의 대표적 유형으로 해학담과 외설담을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3. 사건이나 정황이 대체된 경우

이는 이야기의 핵심 모티프는 같으나 일부의 사건이나 모티프가 대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적 변이까지 수반되기도 한다. 이 경우의 예로는 『자료 3』의 <일야천금미인>을 들 수 있다. <일야천금미인>은 자태가 매우 예쁜 어떤 여인이 하룻밤 잠자리 대가로 천냥을 내세우고 공개적으로 고객을 찾는다는 기이한 설정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료목록과 함께 두 자료의 이야기 줄거리 단락을 보기로 한다.

『자료 3』 : <일야천금미인>

녹음 자료 : <일야천금 미인> : 김태락 구술(남, 77세, 99.1.25.), 연길시 연집

향 남계촌 : 18매

문헌 자료 : <일야숙에 천냥> : 『팔선녀』(1987, 271~275쪽). 차병걸 구술. 임
승환외 정리 : 15매

<일야천금미인> - 김태락 구술(남, 77세 -99.1.25.)

- (1) 어떤 여자가 똑똑한 남자를 구하려고 ‘一夜千金美人’이라는 간판을 내걸
다.
- (2) 충청도의 어떤 총각이 장사 밀천을 위해 천냥을 빌려 집을 나서다.
- (3) 천냥을 몽땅 털어 생각을 사서 서울에 갔다 팔아 삼천 냥을 만들다.
- (4) 서울 구경나갔다가 ‘일야천금미인’이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가다.
- (5) 당사자인 여자를 보고는 그 미모에 홀딱 반해 천냥을 주고 하룻밤 자기
로 하다.
- (6) 자고 난 이튿날 떠나려하니 너무나 아쉬워서 천냥을 더 내고 또 하룻밤
을 자다.
- (7) 이틀을 자고 났으나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어 가진 돈을 몽땅 털어 사흘
밤을 자다.
- (8) 장사 밀천까지 날려버리고 떠나려니 너무나 허무해서 마지막으로 미인의
몸매나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을 넣어 승낙을 받다.
- (9) 음부를 감상하면서 ‘가까이서 보니 죽은 말의 눈이요, 멀리서 보니 포탄
맞은 구멍인데, 좌우에 이빨도 없는 것이 한배 가득 생각을 다 먹어치웠
구나’라고 읊조리며 떠나려하다.
- (10) 미인이 ‘배포 큰 남자를 찾기 위한 계략이었다’며 혼인을 제의함에 들은
부부가 되다.

<일야숙에 천냥> - 팔선녀(차병걸 옛이야기집(상), 271~275쪽, 1987.

- (1) 시골의 삼천석 갑부가 서울로 장사하러 가면서 천냥을 가지고 떠나다.
- (2) ‘일야숙에 천냥’이란 간판을 보고 궁금해서 묻다.
- (3) 노파가 나와서 ‘주인이 나라의 공금을 쓰고 갚지 못해 처형의 위기에 놓
이자 딸이 몸을 팔아 구하기로 결심하고 나셨다’고 울먹이며 말하다.

- (4) 갑부가 딸의 효성에 감동하여 가지고 온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다.
- (5) 딸이 돈을 그저 받을 수 없으니 하룻밤 몸을 바치겠다고 말하다.
- (6) 갑부가 ‘딸같은 처녀와 그럴 수 없으니 차라리 수양딸로 삼겠다’고 제의하다.
- (7) 소녀가 그 은혜에 감동하여 갖은 감사를 드리며, 하루라도 주무시고 가기를 간청하다.
- (8) 이튿날 떠나려 하자 수양딸이 주소를 알려달라 간청하니 마지못해 적어주고 떠나다.
- (9) 그로부터 일년 후에 서울로 올라온 갑부는 수양딸의 아버지를 만나 의형제를 맺고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다.

‘미녀와의 하룻밤 동침에 천냥’이라는 간판을 표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자료는 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자가 배포 큰 신랑감을 찾기 위한 처녀의 지략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반해, 후자는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딸의 효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서두의 동기가 다르다 보니 이야기의 전개와 결말 또한 상당 정도 달라진다. 본디 혼사를 매개로 생겨난 지인지감형의 이야기였던 것이 교훈적인 주제로 대체되면서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서로 다른 별개의 이야기였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리 개편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을 듯하다.

가난한 시골 청년이 생강을 잔뜩 사모아 한 배 가득 싣고 서울에 내다 팔아 세 곱절의 거금을 벌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사흘만에 날리고 빈털터리로 전락하는 모습, 마지막 소원으로 미인의 나체를 살핀 후에 내뱉는 육담 등은 이 이야기의 설화적 재미를 돋보이게 하는 장치들이다. 여기에 미지의 신랑감을 그리는 처녀의 호기심과 그 능동적 성취의 소망이 지략과 함께 어우러지는 지점에서 이야기의 재미와 생동감이 더해진다. 이런 흥미 중심의 내용 대신에 문헌 자료는 딸의 효심을 부각시키고, 그에 감동한 시골의 부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흔쾌히 천냥의 돈을 내놓는가 하면, 그 처녀를 수양딸로 삼는 적극성마저 보인다. 이리하여 목숨을 구하게 된 아버지의 감동과 보은

의 자세는 물론, 이에서 나아가 두 사람은 서로 의형제를 맺고 우애와 행복을 나누는 모습으로 변모된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사건의 대체를 통해 문헌 자료는 그 교훈성을 보다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이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 그 방증으로 우리는 앞에서 본 <나막신, 버선, 감투의 불평>과 같은 우스개 이야기가 공식적인 장소에서 구연되거나 문자로 정착되면서 개변 정리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이나 정황이 대체된 경우는, 대체확장과 대체축소로 각각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기서 양자의 경우를 더 살피지 않은 것은 그 차이가 개작 정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본디부터 그런 차이를 가지고 구연되던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두 경우를 따로 나누지 않고 일단 대체된 경우의 예만에 한정하여 살핀 것이다.

4. 세부 정황이 부연 확장된 경우

이는 이야기의 사건이나 모티프는 대동소이하고 세부 정황이 부연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확장된 경우를 말한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효부종>을 들 수 있다. 그 비교목록과 녹음 자료 및 문헌 자료의 이야기 줄거리 단락을 아래에 보인다.

『자료 4』 : <효부종>

녹음 자료 : 김영덕 구술(99년 2월, 남, 67세) : 11매

문헌 자료 : 『민간문학자료집4』(1984, 33~39) : 최치만 구술(1982년). 박창목 외 정리 : 25매

<효부종 이야기>- 김영덕 구술, 99.2.1. 녹음.

- (1) 효성이 지극한 부부가 어린 아들과 함께 흠어미를 모시고 살다.
- (2) 아이가 어머니 밥상을 축내자 어머니를 위해 아이를 없애기로 의논을 모으다.
- (3) 아이를 엷고 깊은 산에 들어가 물 좋고 양지바른 곳에 물을 자리를 정하

고 땅을 파다.

- (4) 아이의 마지막을 위해 깊이 묻어주려다가 딱딱하고 큰 돌을 만났으나 힘 들여 파내다.
- (5) 파내 놓고 보니 쇠소리가 나는지라 마을 노인에게 보이니 금으로 만든 종이라 하다.
- (6) 그 노인이 ‘하늘이 효성에 감동하여 금종을 내렸으니 아이를 잘 키워 모친을 기쁘게 해드려라’고 말하다.
- (7) 노인의 말에 따라 종을 가지고 집으로 오니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다.
- (8)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효자 부부를 표창하고, 종각을 지어 종을 울리니 듣는 사람 모두 기뻐하고 효도를 다하므로 효부종이라 이름하다.

<효부종>- 최치만 구술, 1982.3. 채집, 해립현 홍성춘, 민간문학자료집 4.

- (1) 옛날, 젊은 부부가 노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시면서 어린아이와 함께 살다.
- (2) 3살 짜리 아이가 노모의 음식을 탐하니 노모도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다 먹이다.
- (3)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기 위해 부부는 고민 끝에 아이를 없애기로 합의 결심하다.
- (4) 아이를 땅에 묻으려고 부부는 깊은 산중의 명당 자리를 골라 부지런히 땅을 파다.
- (5) 묻힐 아이를 위해 땅을 매우 깊이 파다가 큰돌에 막혀 겨우겨우 들어내고 보니 누른빛이 나는 커다란 종이다.
- (6) 마을의 노인을 모셔다가 알아보니 금종이 분명하다며 종을 파게된 사연을 묻다.
- (7) 부부의 말을 들은 노인이 ‘출천지 대효’라면서 금종을 팔면 어머님 모시고 호의호식할 수 있다며, 마을로 내려가자 하다.
- (8) 마을에 옮겨놓고 종을 울리니, 종소리를 듣는 모든 이가 웃고 화목하게 되므로 종을 팔지 말고 마을에서 보존하자는 여론인지라 부부도 이에 동의하다.

- (9) 종소리 때문에 웃음과 화목의 마을이 된 소문이 퍼지자 임금이 알고 종을 궁중에 매달고 올리니 온 나라가 화평하게 되다.
- (10) 신기한 종소리의 사연을 들은 임금이 효부종이라 명명하고 부부를 서로 초치하여 살게 하니 노인은 백세 장수하고 아이도 자라 훌륭한 인제가 되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양자가 비슷한데도 그 분량은 크게 차이가 난다. 녹음 자료에 비해 문헌자료가 2배 가까이 부연되고 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모티프는 삼국유사의 <손순매아>와 대동소이하다. 우리의 옛 문헌에 있는 효행담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구전으로 유포되는 과정에서 당대적 관습이나 관념 등의 영향을 받아 녹음 자료와 유사한 형태의 이야기로 변이되고, 그들 중의 한 변이 형태가 문헌 자료와 같은 모습으로 정리 수록된 것이 아닐까 한다. 소재적 원천이 같은 이야기가 구전되다가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교화적 의도가 강화되면서 부연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단순 정착이라면 오히려 축약될 것이지만 조선족 문헌정착 설화의 이데올로기 지향성 때문에 세부 정황이 부연되고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위의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녹음 자료의 단락 (2)가 문헌 자료에서는 (2)와 (3)으로 분화되어 있는데, 이는 그 세부적 정황이 구체화됨으로써 인과성을 확보하고 있기에 독립 단락으로 분절된 것이다. 이 부분을 비교해보면, 구전자료의 단락(2)는 어머니 밥상을 넘보는 아이에 대한 정보가 2행, 그 아이를 없애기로 의논 결정하는 대목이 4행 도합 6행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문헌자료는 단락(2)가 14행, 단락(3)이 19행이다. 아래의 인용을 보면 문헌자료가 부연 확장되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애도 애들이란 다 그러한 것입니다. 어머니 밥상에 자꾸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저 아이를 봐두게 되면 어머니는 제대로 잡숫지 못하고 제대로 잡숫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계실 수가 없으니까 없애 치우는 것이 어떡합니까?’

라고 스스로 말씀 올렸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자 언제 이 말이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인차 나도 그런 생각이었네.'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김영덕 구술, 1999년.2월).

“그런데, 일은 언제나 세 살 먹은 아이한테서 생겼다.(중략) 아이때문에 아들며느리는 늙으신 어머니를 잘 공대할 방도가 없었다. 아들도 안타까와 가슴을 뜯었고 며느리도 속이 타서 가슴을 뜯었다. 어린것은 다래도 말을 듣지 않았고 때리고 욕해도 그때뿐이었다. 한편 어머니는 어린것을 욕하거나 때리는것을 보기만 하면 며칠씩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때릴수도 욕할수도 없었다. 아이만 없으면 어머니 한분을 잘 모실 수 있는데 아이가 있어서 늘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웠다. 서로 말은 주고받지 않았어도 아들도 이런 생각을 했고 며느리도 이런 생각을 했다.”(『민간문학자료집 4』, 33쪽)

녹음 자료의 인용 부분을 줄거리로 나타낸 것이 바로 단락 (2)이다. 그런데 문헌 자료의 인용부분은 중간에 석줄 정도를 생략하고서도 이만한 모습이다. 이를 보다못한 부부가 어머니 봉양을 위해 아이를 없애기로 의논 합의하는 대목은 여기에 이어지는데, 그 분량은 20행 가까이에 이른다. 어머니 밥상에 매달리는 아이의 모습이 구전 자료에서는 두 줄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문헌 자료에서는 그 4배 정도의 분량이다. 이는 바로 세부 정황의 부연으로 이야기가 확장된 것이다.

그리고 구전 자료에 없는 단락이 바로 문헌자료의 (8)이다. 종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웃음을 잃지 않고 화합하게 되므로 종을 팔지 말고 마을에 두고 종소리를 늘 들을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함에 효자 부부도 기꺼이 이에 동의한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효자 효부의 마을'에서 '웃음과 화합의 마을'로 전이되는 집단의 상징인 것이다. 이는 바로 공동체 의식의 강조와 집단 행복의 추구를 지향하는 조선족 문헌정착 설화 특유의 변이양상에 부합되는 모습이다.³⁰⁾ 이 단락을 제외하면 양자는 그 줄거리가 거의 같다. 그런데도 각각의 단락 모두 문헌자료가 길게 부연되는 까닭은 바로 세부 정황을 부연함으로써 이야기의 인과적 연결을 보다 그럴듯하게 하려는 정리자의 의도가 개입한 때문이 아닐까 한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노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여 마음 아파하는데, 이런 자식은 그런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할머니께 올리는 음식을 가로채는 나날

30) 이에 대해서는 이현홍(1997)을 참조.

의 형편이다. 할미는 손자 사랑에 그저 좋아하면서 자신의 몫을 내주고 마는 딱한 사정인데, 이를 보다못한 부부가 노모를 위해 자식을 사지로 내모는 기막힌 사연의 자연스런 전개를 위해 인과적 개연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부연된 것이다. 특히 위의 예처럼 노모의 봉양을 위해 살아 있는 아이를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정황을 상세히 그려냄으로써 현실적 인과성의 확보는 물론 아들 내외의 효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정리 개편한 사례라 하겠다.

5. 사건이나 정황이 첨가 확장된 경우

이는 새로운 사건이나 정황이 첨가되면서 이야기가 양적으로 확장된 경우이다. 이 유형의 대표적 자료로는 <전백록>을 들 수 있다. 전백록(1645-1712)은 조선후기에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는 무관 출신으로 청렴성을 높이 평가받았던 듯하다.³¹⁾ <전백록>이란 제목으로 녹음 채집된 이야기는 1편이 있고 그 분량은 18매 내외이다. 같은 제목의 문헌자료는 2편이 있는데 각각 33매, 12매³²⁾ 내외이다. 자료②는 녹음자료와는 성격이 매우 다른 별개의 각편인 듯하다. 자료①도 생소한 사건이나 모티프가 첨가 확장됨으로써 그것이 개작 정리의 결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별개의 각편이었던 것인지를 단정하기가 어렵다. 첨가에 의한 확장의 경우는 대체로 이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보다 분명한 녹음 자료를 찾기로 기약하고 여기서는 두 자료를 서로 비교해보는 것에 머무르고자 한다. 비교 대상 자료목록과 이야기 줄거리 단락을 아래에 보인다.

『자료 5』 : <전백록>

녹음 자료 : 김태락 구술(1999년 1월, 남, 77세) 연길시 연집향 남계촌.-18매
 문헌 자료 : ①『사랑산』(1982, 141~151쪽) : 허영준 구술(1979년) 박창목 수

3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9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510쪽을 참조.

32) 이 이야기는 사건이나 정황이 축약 대체된 경우에 해당된다. 같은 제목의 이야기가 두 경우로 나누어지는 까닭은 개작 정리보다는 그 각 편의 다양성 때문인 듯하다.

집 정리.-33매

②『블로초』(1984, 244~248쪽) :림경률의 2인 구술(1969년8월~1970년8월). 리용득 수집 정리.-12매.

<전백록>-김태락- 1999.1.25. 연길시 연집향 남계촌

- (1) 진사 전백록은 성질이 강직하여 바른말을 일삼으므로 모두들 그를 미워하다.
- (2) 예부시랑이자 실력자인 이문택이 전백록을 곤경에 빠뜨리기로 작정하다.
- (3) 전백록이 없는 틈을 타서, 아침 조회 때 모든 신하가 달걀을 하나씩 지참 등청하라는 지시를 내리다.
- (4)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전백록이 ‘수많은 달걀을 위해 수탉이 되겠다’고 날갯짓을 하며 수탉 흉내를 내자 임금이 도리어 그의 임기응변을 칭찬하다.
- (5) 이문택이 생일잔치를 맞아 못 신하를 다 초청하면서 전백록만 제외하자, 불청객인 그가 잔치마당에 나타난다.
- (6) 이문택이 그를 끌려주고자 원로 대신들이 즐겨하는 옛말 놀이를 제외하다.
- (7) 모두들 이야기로 흥겨운 분위기가 되자 전백록이 자기 아들 이름을 ‘이문대기’라고 지은 내력을 옛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다.
 - 젊은 시절에 객지에 나가서 공부할 때에 겨울옷을 가지러 집에 들렀다가, 이가 물어서 잠을 못 이루게 되자 아내와 잠깐 동품하고 집을 떠났던 적이 있는데, 3년 후에 돌아오니 그때의 일로 아내가 아들을 낳았기로 그 이름을 부득불 ‘이문대기’라 짓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
- (8) 줄지에 전백록의 아들로 전락해버리는 망신을 당하게 된 이문택이 도리어 그를 두려워하게 되다.

<전백록>(사랑산, 박창목 수집 정리-구술 허영준-1979.6. 연길현 용정진

- (1) 옛날 전씨 문중의 한 과부가, 사냥꾼에 쫓기다 마당으로 뛰어들어 백사슴을 숨겨서 목숨을 구해준다.

- (2) 백사슴이 목에서 박씨를 토해 여인에게 먹이니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다.
- (3) 문중의 비난을 무릅쓰고 존장 어른이 그 사연을 듣고는 아이 이름을 전백록이라 짓고 고이 기르게 하다.
- (4) 전백록이 총명 과인하여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길을 떠나다.
- (5) 과행 길에 대감들의 장기 구경을 하다가 24수 앞을 내다보는 훈수를 하다.
- (6) 이튿날 과거에서 두 대감이 전백록의 총명을 면접 확인하다.
- (7) 일년에 두 번밖에(나랏일을 의논할 때와 일이 잘못됐을 때) 입을 열지 않는 강정승의 말문을 열도록 하는 과제를 두고 대감과 전백록이 내기를 하다.
- (8) 백록이 강정승의 뜰에 가서 아무 말도 않고 그저 긴 끈이 달린 가죽주머니 둘을 어깨에 메고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이 가죽주머니를 천천히 들어 옮기며 걸으니 강정승이 갑갑다 못해 말을 걸다.
- (9) 두 가죽주머니의 용도를 묻는 강정승의 물음에 백록이 ‘몸에 넘치는 담과 지혜를 버릴 수가 없어 가죽주머니에 담아 다닌다’고 답하다.
- (10) ‘한강의 무게가 몇근이나 되는지 아는가’라는 강정승의 물음에 ‘경기도를 저울판으로 삼고 삼각산을 저울추로 삼으면 그 무게가 될 것’이라 답하다.
- (11) 강정승이 버선발로 백록을 맞이하여 함께 선치를 베풀고, 백록은 지효로 어머니를 봉양하다.

전백록의 총명 내지는 임기응변에 얽힌 삽화가 구전자료에서는 둘 뿐이다. 이에 반해 문헌자료는 신이로운 출생을 통해 그의 비범성을 예고하고, 이어서 과거 길에 오르는가 하면, 길거리 장기판의 훈수를 통해 실력자의 주목을 받아 마침내 그 총명을 과시하게 되는 등의 네 삽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네 삽화는 비록 그 내용이 구전자료의 그것과는 달라도 임기응변의 비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기능은 동일하다. 그런데, 구전설화의 총명 과시 삽화는 주인공 전백록을 억압 공격하려는 고위 관료의 음해와 그에 대한 방어의 결과로 상대

인물이 도리어 망신을 당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문헌 설화는 전백록의 총명을 알게 된 대감이 그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는 이 과제를 기발하고도 재치 있게 해결함으로써 능력을 인정받아 국가적 중책에 등용되어 선치를 베풀고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는 등의 행복한 결말을 보인다.

구전설화가 특정 개인의 총명과 그를 질투하는 인물 사이의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스개 이야기라면, 문헌설화는 한 인물의 비범성이 신이로 운 출생, 과제부여와 그 해결을 통한 능력의 발휘,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중용하는 대감의 안목과 국량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종의 영웅담으로 변모된 셈이다. 임기응변 중심의 개인적 재치보다는 국가적인 중대사를 해결해내는 영웅적 능력 중심으로의 개작 정리를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IV. 마무리

중국조선족은 우리 민족사의 고난이라는 짐을 가득 짊어지고 있다. 현재의 영토 개념으로 볼 때는 비록 중국이라는 타국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애초에 그 땅에 함께 모여 씨뿌리고 가꾸며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우리의 밥과 옷, 우리의 말과 글,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보람과 긍지 등을 모두 함께 나누며 살았다. 그러기에 중국 사람들은 그들을 ‘조선족’이라 부르고, 우리 또한 ‘중국조선족’이라 일컫지 않는가. 1000년 전 20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불과 90여 년 전만 해도 그들은 우리와 같은 운명공동체였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공동체만일 수밖에 없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다. 그 문화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언어활동이며, 설화는 언어활동의 창조성을 집약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중국 조선족 설화를 발굴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앞에서의 논의를 요약한다.

1) 지금까지 간행된 중국조선족 문헌정착설화는 대략 2100여 편이다. 이들 문헌정착설화는 구연 현장의 상황이나 어법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기록되

거나, ‘정리’라는 이름의 손질을 거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사정을 대강이나마 더듬어 보고자 필자는 중국 현지에서 녹음한 설화 140여 편 중에서 문헌에 정착된 설화와 ‘동일한 제목의 설화’³³⁾를 14종 찾아내어 이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2) 개작 정리의 양상을 ①구전과 동일한 경우, ②세부 정황이 축약된 경우, ③사건이나 정황이 대체된 경우, ④세부 정황이 부연 확장된 경우, ⑤사건이나 정황이 첨가 확장된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3) 14종 중에서 ①의 경우는 3종이 있었는데, 이들도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꾸는 정도의 정리는 가해진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②, ③, ④, ⑤의 경우는 각각 1종밖에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제시된 비교 대상 자료만으로는 그 경계를 확정하기 힘들 정도로 그 숫자가 부족하다는 한계 때문인 듯하다. 다만, ②의 경우는 해학담과 왜설담이 주로 축약 정리의 대상이 되고, ③의 경우는 흥미 중심의 사건이나 정황이 교훈적인 것으로 일부 대체되고, ④의 경우는 교훈담이 주로 부연 확장의 대상이 됨을 추론할 수는 있었다.

5) 그러나 ⑤는 어떤 경우에 이러한 확장이 수반되는지를 추론하기조차 불가능했다. 이 또한 자료적 한계 때문이 아닐까 한다.

6) 이 논문의 한계는 녹음 자료의 부족 때문이다. 풍부한 자료를 확보한 후에는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선, 방법적 가능성의 일단이라도 피력해 보고자 하는 시도임을 밝혀둔다.

주제어 : 중국 조선족 설화, 녹음 자료, 문헌정착 자료, 축약, 대체, 부연 확장, 첨가 확장

33) ‘동일한 제목의 설화’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녹음 자료의 구술자가 설화의 제목을 직접 붙여주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선풍 편, 『조선족구비문학총서』 7권~13권, 민속원, 1991.
- 김태갑 편, 『조선족전설집』, 민족출판사, 1991.
- 최삼룡, 『중국조선족 재래설화 변이고』, 『조선족 민속연구』 1권, 연변조선족 민속학회·조선족 민속연구소, 1991.
- 소재영 외, 『연변지역 조선족 문학연구』,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2.
- 정재호 외, 『백두산 설화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 최인학, 『백두산 설화』, 밀알, 1994.
- 이헌홍, 『중국 조선족 설화의 구술 전통과 이데올로기 지향성』, 『한국문학논총』 16집, 한국문학회, 1995, 31~56쪽.
- 이헌홍, 『중국 조선족 문헌정착설화의 변이 양상』, 『한국문학논총』 20집, 한국문학회, 1997, 29~67쪽.
- 하미경, 『중국조선족설화연구』, 부산대학교 국문과 석사학위논문, 1998.
- 강봉근, 『나중미부설화와 홍송과 인삼의 비교연구』, 『한국언어문학』 41집, 한국언어문학회, 1998.
- 이헌홍, 『중국 조선족 설화와 한국 설화의 비교 연구』, 『문창어문논집』 37집, 문창어문학회, 2000, 27~50쪽.
- 김동훈, 『중국 조선족 구전설화 연구』, 한국문화사, 1999.
- 김동훈, 『중조한일민담 비교연구』, 료녕민족출판사, 2001.
- 우상렬, 『중국 조선족 설화의 종합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Abstract>

Aspects and Meanings of Adaptation and Arrangement of the Chinese Chosun-jok Folk-tales Confirmed in Literature

Lee, Heon-Hong

The Chosun-jok in China(Korean-Chinese people) bear a full burden of our nation's hardship. They were destined to share with the same community as we only ninety years or so ago. But, at present, they are separated from us in the same cultural community. One of the things that contain the cultural community images most favorably is folk-tales. Folk-tales intensively portray the creativity of verbal communication. In this respect, it is extremely significant to unearth, preserve and study the Chosun-jok folk-tales. Further detail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pproximately 2100 Folk-tales of Chinese Chosun-jok confirmed in literature were published up to the present. These folk-tales of Chinese Chosun-jok confirmed in literature were not recorded faithfully in terms of narrating situations and usage but some were dealt with in the name of "arrangement". To grasp such circumstances roughly, I found out 14 articles having the same titles as those confirmed in literature among some 140 folk-tales recorded in the actual places of China and compared them with one another.

2) The aspects of adaptation arrangement are divided into the five categories of ①the same one as the oral tradition ②contraction of detailed circumstances ③replacement of events or conditions ④elaborated expansion of detailed circumstances ⑤added expansion of events or conditions.

3) Among the 14 folk-tales, 3 articles belong to the category of ①. But, these folk-tales also have been slightly rearranged, for example, through changes from the colloquial style to the literary one.

4) Folk-tales belonging to the categories of ②, ③, ④, ⑤ are one article in each case. This is because there are so limited articles of comparative materials that it is hard to demarcate the borderlines among them. However, it is inferred that in the category of ②, humorous and obscene stories were subject to contracted arrangement, in the category of ③, entertaining events and circumstances were partially replaced with instructive ones and in the category of ④, edifying stories were chiefly expanded with some elaboration.

5) But in the category of ⑤, it is impossible to infer what occasion caused its expansion. This is also due to the lack of materials.

6) Limitations noticed in this thesis are mainly due to the lack of recorded materials. With abundant materials, the study will be more convincing in making its points clear. Waiting for the time to gather plenty materials, this paper is attempted to provide a methodological possibility for the study of its kind.

Key Words : Folk-tales of the Chinese Chosun-jok, recorded materials, materials confirmed in literature, contraction, elaborated expansion, added expansion